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12월 8일(금) (음력 10월 21일) Пятница 8 декабря 2017 г. № 47(11676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1일(금) 코르사코브 광장의 언덕에서 사할린희생동포기념위령탑 건립 10주년 기념 현화행사가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2면) (이예식기자 촬영)

## 단신

### 사할린주정부, 인사발령

알렉산드르 제르노위이 제1부지사 겸 주정부 행정실장직 사퇴로 행정실장으로 안톤 율로쉬코가 임명되었다. 12월 6일부터 그는 제1부지사직까지 맡게 되었다. 37세의 안톤 율로쉬코는 연해주 출신이고, <제1채널>과 HTB TV방송국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2015년 5월에는 사할린주정부 행정부 부실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해왔다. 사할린주정부 경제개발담당 부수상에는 올해 2월부터 사할린주경제발전부 장관을 역임한 알렉세이 벨리크가 12월 6일부로 임명되었다. 경제발전부 장관에는 알렉세이 우스펜스키 차관이 대행하게 된다.

또한 건설·운송·주방공공경리, 에너지 등을 담당하던 알렉산드르 지트코브 사할린주정부 부수상의 임기는 12월 10일부로 끝난다. 최근에 건설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트코브의 업무실적에 대해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가 불만을 표했었다.

얼마 전에는 사할린주건설부 나탈리아 짜모센코 차관이 해직당했다.

### 메첸체브 연방의회 상원 사할린대표, 경제정책위원장으로 선출

러시아 연방의회 상원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사할린대표 드미트리 메첸체브가 공개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는 입법 및 행정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2002년부터 상원 경제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메첸체브 위원장은 연방정부 부서, 지역 정부와 국가두마 의원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며 러시아 에너지 분야의 기업, 러시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상공회의소, 사회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연방의 지원이 필요한 실제적 문제를 현장 지역들과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한 계획안을 세우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 사할린에서 <아시아의 아이들>동계스포츠 게임의 특별 집행부 개설

<아시아의 아이들> 제1회 국제동계스포츠게임 집행부 비영리자치단체를 사할린에 개설한다. 단체 설립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관점은 사할린주스포츠부의 세부 설명을 경청 후 심의를 거쳐 지난 4일(월) 주두마 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사할린주스포츠부에 따르면 비영리자치단체의 지도자로는 1996년부터 <아시아의 아이들>스포츠대회 조직에 경험이 있는 야쿠츠크 대표가 맡게 된다고 전했다.

<아시아의 아이들>동계스포츠게임의 총예산은 2억1700만 루블리로 예상하고 있다. 그중 2019년에 연방예산에서 3000만 루블리를 지원할 예정이고 1억2400만 루블리는 예산 외 후원을 알아보고 있다. 새로 설립될 비영리자치단체에 2018년에는 사할린주 예산에서 6400만 루블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9년도 대회 개최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더 요구될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현재 첫 <아시아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게임에 20개국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 참가국 최종 명단은 2018년 3월에 작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12월 10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의원 보궐 선거

12월 10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두마 의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다. 투표는 제2, 3, 11, 17 선거구에서 이뤄진다.

공석인 의원 4석 선출에 29명이 후보로 출마한다.

시두마 의원의 3개 공석은 주두마 의원선거 후 발생했다. 시의원이었던 최 유리, 샤리폴린 알렉산드르와 즈다카예와 나탈리아 의원은 이번에 주두마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8월에는 그린베르그 알렉산드르가 시의원에서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제2 선거구(노워알렉산드롭스크)에서는 후보 8명 중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3선거구(루고위예)에서는 6명이 경쟁에 나선 가운데 이중 한국 성을 가진 후보자가 3명이다.

제11선거구(유즈노사할린스크 서부지역, 켈레노도로즈나야 거리)에서는 후보 8명이 나섰고, 제 17선거구(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중앙지역)에서는 7명의 후보가 보궐선거에 나섰다.

(본사기자)

## 트루트네브 부총리, 사할린 방문

12월 4-5일 양일간 러시아대통령연방구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그는 섬지역의 여러 시설들을 방문하고 주내의 사회경제발전, 에너지분야, 철도·항구 제반시설구축, 주택·학교·스포츠시설과 의료시설, 건설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권대표는 사할린주에서 선두개발지역들이 잘 개발되어 있지만 사할린정부 외의 투자금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트루트네브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앞으로의 사할린주 예산 문제와 관련돼 있다.

## 사할린주두마, 2018년 주예산 승인

지난 7일(목) 사할린주두마가 제2 심의를 통해 2018년, 그리고 2019-2020년 최종 주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년 주예산의 수입은 1012억 루블리, 지출액은 1112억 루블리다. 수입액에는 연방이 사할린에 지급계획 168억 루블리가 포함돼 있다. 예상한 대로 내년 예산은 적자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사할린주의 실제적 주요 프로젝트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할린이 가스 프로젝트의 수익금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내년 주예산 내역은 여러 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전통적으로 야당으로서 공산당 대표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선거구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사할린주정부 웨라 쉘트비나 수상은 많은 문제들을 지방자치체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효율적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연방정부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지시로 현재 사할린에서 5명의 전문가가 주예산의 투자지출의 효과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2018년 지출액이 정해지긴 했으나 앞으로 2019년, 2020년의 예산이 큰 고민거리로 남는다. 앞으로 지원액에 대한 내용은 연방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사기자)

## 새고려신문

##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일(금)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서 사할린회생동포기념위령조각탑 건립 10주년 기념 현화행사가 진행되었다.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날 망향의 언덕에 한강포럼 대표단, 사할린 한인사회계 대표, 한국-러시아 외교계 대표, 코르사코브 행정부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이 모여 이날 흑독했던 사할린동포들의 과거사를 다시금 회상하게 되었다.

2004년에 창설된 우리말 TV방송국(김춘자 국장)에 기자재 지원을 했던 한강포럼(회장 김용원)대표단은 당시 바다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서 1945년 8월에 우리 동포들이 매일매일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는 슬픈 얘기를 들었다. 김용원 회장은 "일본사람들만 돌아가고 이곳에서 추위에 떨고 울고 미치기도 했던 우리 동포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왔다."고 하면서 다시금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2007년에 한강포럼의 발의로 망향의 언덕에는 위령조각탑이 세워졌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 황명희 소장은 "우리 국민들이 사할린을 방문하면 꼭 가시는 곳은 이곳 코르사코브 항구에 위치한 망향의 언덕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 한강포럼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배모양의 위령기념조각탑은 종전 후 사할린에 남겨져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던 한인들의 통한을 상징하며 후세대들이 아픈 역사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세워진 것입니다. 위령조각탑 건립 10주년을 맞는 금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출발한 2000여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망향의 언덕을 방문하여 질곡의 현대사에서 무참히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결코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다짐

## 사할린회생동포기념위령조각탑 건립 10주년 망향의 위령탑은 사할린한인사의 상징



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계속 늘어나 이 위령조각탑은 통한의 과거를 넘어 미래를 지향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을 상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러시아 외무성 사할린대표부, 코르사코브시행정부 관계자들도 사할린한인과거사를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위령조각탑 작가 최인수 교수는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물질을 통해서 형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제 작품이 아니고 모두의 작품이다."라고 고백했다.

위령조각탑 건립 10주년 행사는 생화 현화와 묵담으로 마무리되었다.

행사 사회는 사할린회생동포기념위령조각탑 건립 프로젝트를 사할린에서 담당 한 <사할린>국영텔레라디오공사 소속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이 맡았다.

김 국장은 같은 날 오후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회·우리말방송국과 한강포럼이 주최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원 한강포럼 회장은 또다시 위령조각탑을 세웠던 동기와 과정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 한강포럼은 사할린동포들이 더 발전하고 또 뭔가 하시는 일에 사할린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기획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조각을 실현하기까지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의 한 단편과 큰 서사의 내용을 어떻게 조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느냐? 그러다 천년만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금속(스테인리스 스틸)이란 자료를 만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을 먼 곳에서도 보고, 가까운 곳에서도 보고, 들어가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각을 생각했고, 조각에 들어가서 하늘도 쳐다보고 갈매기도 보고 먼 바다도 보고 집들도 보고, 또 거기에서 만난 사람끼리 얘기도 하고, 만지고, 보고,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각이 가능할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을 망향의 언덕에 세우고 나서 저에게는 두 가

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그 이후로 제가 참 사랑하는 인생의 운명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서울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살아왔는데 세 번째 사할린을 찾아와 망향의 언덕에 가면서 '공간적으로 제 삶의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망향의 언덕에 있는 조각은 이미 저 개인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걸 특별히 느꼈습니다."라고 최인수 조각가는 소회를 토로했다.

이날 사할린 측은 의미있는 사업을 해 온 한강포럼(위령탑 건립, 기자재 지원, 한러우호축제 개최)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사를 드렸다.

이날 사할린주한인회와 한강포럼은 서로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하고 김춘자 국장, 임용권 전 사할린주한인회 회장, 이태준(이태출) 코르사코브한인회 회장을 비롯한 사할린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이모저모

### 사할린주, <조국의 역사에 대한 시험> 국제행사에 합류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은 12월 9일 11시에 열리는 <조국의 역사에 대한 시험>국제행사에 사할린 주민들의 참가를 당부했다. 이 행사는 러시아 전 지역과 세계 40개국에서 진행된다.

시험에서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역사와 현대 주요 사건들과 사실들이 반영된 40 문항을 40분간 치르게 된다.

시험 문항들은 로모노소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의 지도적인 학자들이 작성했다.

러시아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연령, 학력, 사회적 신분과 종교에 상관없이 익명으로 자신의 지식을 검토했을 수 있는 기회다.

행사의 지역 코디네이터로는 사할린주 청년의회가 나선다.

지역에 참가 문의는 엘친 대통령도서관 지역센터 전화 42-25-39, 45-25-40, 45-25-22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도서관 측은 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ции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шает островитя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ции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а",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9 декабря в 11:00. Мероприятие охватит вс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и около 40 стран.

Участникам тестирования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за 40 минут ответить на 40 вопросов, в которых будут отражены основные факты и важнейшие события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Задания теста подготовили ведущие ученые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Ломоносова.

Анонимно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смогут гражда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образ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ым координатором акции выступает молодежный парлам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вопросам участия в тестировании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езиден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имени Ельцина или по телефонам: 45-25-39, 45-25-40, 45-25-22,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아동교육 강연에 관심 가져

<공개강연>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무엇 때문에 아동들이 교육에 반항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예방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현실적인 주제로 쿠즈네초프 시 중앙도서관에서 사할린국립대학교 교육담당 부총장 마리나 로마노와 교육학 준박사가 공개강연을 했다. 마리나 로마노와 강사는 가정교육의 실제 경험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기본적으로 부모들의 과오를 지적했다.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강사는 <어른대 아이>시스템에 상호작용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얘기하고 아이들의 교육 반항을 피하려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교육 반항에 대한 강연은 시민들에게 큰 성과를 안겨주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마리나 로마노와는 참가자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개인 상담도 해주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개발청, 시청소년이니셔티브센터와 사할린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개강연>기획의 일환으로 실제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하는 무료 공개강연이 12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일반인을 상대로 진행된다. 강연 일정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이 기획에 따라 12월 9일에는 다음 강연이 마련되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할린국립대 러시아와 세계 역사학 학과장인 알렉산드르 와실렙스키 교수가 <사할린·쿠릴열도와 홋카이도의 중세 역사>를 주제로 강연한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 интересом послушали лекцию о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Из-за чего дети сопротивляются воспитанию и как предупред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узн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Лекториум".

В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Кузнецова с лекцией на эту актуальную тему выступила Марина Романова, проректор по учебной работе Сахалин-

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ктор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кандидат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Она привела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из практик семей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и обозначила основные ошибки родителей.

В ходе диалога с горожанами лектор рассказала, как работает принцип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системе "взрослый — ребенок", и объяснила, как нужно вести себя при общении с детьми,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их сопротивления воспитанию.

Лекция о сопротивлении воспитанию имела большой успех у горожан. По оконча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Марина Романова ответила на все вопросы аудитории и дала персональные совет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Лекториум", разработа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по развит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вместно с центром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каждую субботу до конца декабр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бесплатные лекции по актуальным темам.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списанием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йдет 9 декабря. Перед горожанами выступит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российской и всеобщей истории,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евский с лекцией на тему: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Хоккайдо",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사할린주 주요 울카(트리)

#### 공식 점등식에서 <곰 플래시몹> 열려

12월 16일 18시 주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사할린주 주요 트리 점등식에 처음으로 <곰 플래시몹>이란 우수 곰 의상 새해 창작콩쿠르가 개최된다.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할 사람들은 누구든 콩쿠르에 참가할 수 있는데 참가를 위해 모든 참가자들은 곰 의상을 대여하거나, 구입하거나, 손수 제작한 의상을 입어야 한다. 우수 곰 복장과 진짜 곰과 유사한 참가자들은 후원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

우승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명절 프로그램 시 무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곰 플래시몹> 참가자들의 등록은 12월 16일 17시 30분에 주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시작된다.

문의전화는 (4242) 72-82-02라고 주 문화부 홍보실은 전했다. (8면에 계속)

# 사할린주교육부, 강원도교육청과 교육교류 지속 추진

## 강원도교육청 사할린 학생들을 동계올림픽에 초대

8명으로 구성된 강원도교육청 대표단(단장 정재석 교육국장)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할린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9월 말에 사할린주 교육부와 한국 강원도교육청 간 교육교류 및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로 이루어졌다.

지난 1일(금) 사할린주정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표단을 환영한 한 엘레나 바비나 사할린주 교육부 차관은 "러시아, 러시아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이러한 서로의 관심이 사할린과 한국 간에 더욱더 긴밀한 문화교류를 하는 데에 견고한 토대가 될 거라 봅니다. 또한 우리 주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어와 한민족문화를 주



내 중학교 5곳과 유치원 2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바비나 차관은 사할린주 교육현황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정재석 강원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작년에 사할린주정부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이에 담긴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할린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2월 9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 사할린 학생 21명을 초청하여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강원도의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가운데 견학도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행사도 관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교육부 측에서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때 강원도를 방문할 학생들은 5구역 교육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할린 교육교류 계획을 담당하는 강원도 교육청 강원한 장학관은 현재 강원도에서 제2 외국어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4 곳(고등학교 3개, 중학교 1개)이 있다며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사 중 원어민 교사도 있다고 본사기자에게 알렸다. 현재 강원도 학교들 중에는 제2외국어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채택한 학교들도 많다고 알려졌다.

또한 강원도 학생들은 내년 9월쯤 사할린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사항은 현재 논의 중으로 양 지역 학생들은 홈스테이로 머물 계획이라 전해졌다.

정재석 교육국장은 "지금 시작이어서 사할린에 와서 서로가 협력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며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한국어교육이 생각보다 잘 돼 있다고 했다.

"사할린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 보급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강원도 교육국장은 "방문목적 중 하나는 사할린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협의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했다.

한편 강원도 교육청은 이미 사할린 학생들을 초대한 바 있어 올해 5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를 위주로 한 학생대표단이 강원도에서 개최된 세계평화교육축제에 참가했다.

이번에 강원도 대표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제3김나지아, <젼추지나(진주)> 유치원, <체부라쉬카>유치원,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과를 방문하고 여러 박물관을 견학했다. 또한 대표단은 사할린한국교육원을 방문해 김주환 원장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한국대표단 중에는 러시아어 채택 학교(북평고, 북평여고, 묵호고, 묵호중)의 교장 선생님들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사할린주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 간의 교육교류협력합의각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의가 깨지지 않는 한 합의는 지속될 전망에 강원도와의 학생 간 교류를 기대한다.

(배순신기자)  
(사진: 주교육부 제공)

# 80주년 연해주 한인 강제추방 및 79주년 사할린 강제징용을 위한 "국가총동원법"제정에 즈음하여

(2016년 김포 재외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보고한 자료)

## 재러시아 한인 현황과 한-러 경제협력에 활용

전 소련-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명예교수 전학문 박사

(전호의 계속)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의 유래는 동일하지 않고 이질성이 있지만 한인은 역사적으로 남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박탈하지 않는 평화애호민족이고 뚜렷한 근면성의 특징과 더불어 생활, 주위, 외부, 국내 및 국제적 정책의 다양한 모든 어려운 환경을 탁월한 인내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 민족이란 사실이 여러 출판물이나 언론에 발표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소련대표단이 참석했을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계를 설립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한국의 도약적 경제발전에 대한 보도가 퍼져 재러 한인동포들은 큰 긍지를 가지고 한국문화의 부흥을 시작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독립국가연합 한인동포 사회의 상황은 대폭 변경되어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짧은 기간에 한인협회 및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들어났고, 러시아 학교 내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특별교실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대중적으로 한글 수업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 했지만 소련정부는 노동인력 상실을 우려해 귀환시키지 않았고 억류되어 모진 세월을 견뎌낸 사할린 한인들은 오직 한-소 국교가 수립된 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1997년부터 영주귀국이 시작되어 현재 전국 22개 지역에 약 4,200여 명이 조국의 땅에 등지를 들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조국에 돌아가겠다는 생각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귀국했지만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사할린에서 온 이방인"으로 맞이하는 차가운 한국 주민들의 시선은 사할린의 매서운 추위만큼 냉랭하였고 생활은 생각보다 평탄치 않았다. 2009년 정치권에서는 사할린한인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과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사할린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으나 벌써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표류 중이다. 귀국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상 지나갔지만 영주귀국을 함께 못한 자녀들과의 생이별로 늘 그리워하면서 사할린 쪽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에 속해 있었던 크림반도가 2014년에 실시한 주민들의 국민투표로 러시아 연방으로 병합되어 제재된 이후 러시아의 경제적 악화, 노임저하, 실업 및 취업난 문제가 심각해져 젊은 세대가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그중 대학 출신자도 많지만 대다수는 한국어를 모르는 이유로 동남아시아 청년들과 같이 노가다로 근무하고 있다.

사할린 지방교육에 큰 공을 세운 교육대학을 사할린주 경제발전 전에 필요한 지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할린 종합대학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을 못해 일부는 한국으로, 대다수는 러시아 대륙으로 취업을 찾아 떠나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영특한 한인 청년들은 러시아의 명문대학 졸업 후 사할린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취업하거나 또는 미국과 유럽의 대학으로 유학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강국이다. 특히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극동지역은 러시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으나 자원종목의 다수 점유율은 50% 이상이며 러시아 연방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북방 루트가 열리게 되면 한민족의 활동 무대가 될 전망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우 러시아의 정치적 특성, 경제적 상황, 러시아 민족의 문화 및 심리와 더불어 러시아어를 잘 아는 수많은 인재들, 특히 젊은 한인 세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러시아 한인 새 세대 인재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중국 잔류 일본 고아 및 혼혈아 2세와 3세들을 위하여 여러 도시에 특별교육 시스템을 설립하여 일본어 수학을 시작하였다. 일어를 습득한 일본계 중국 세대 대다수는 일본의 거주지를 거절하고 태어난 고향인 중국으로 귀국하려는 소망에 부응하여 일본정부는 특별한 기술 및 경영학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몇 년 동안 계속 수련시켰다. 그 후 중국의 여러 대형 도시에 일본 합작기업소, 예를 들면 대련(타이렌)시에 가동하고 있는 합작회사 "파나소닉"과 "도시바" 공장을 설립하여 매니저로 취업시켰다. 그들의 활약으로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정보가 중국 및 일본의 미디어에 널리 발표되었다. 현재 그들의 자녀들도 여러 일본학교에서 정부의 장학지원으로 계속 수학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일본의 경험을 활용하여 한-러 경제협력강화의 목적으로 재러 한인 젊은 세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유학생 유치용 학자금, 교육비용 국가 장학지원을 확보하여 한국어를 수련시킨 후 재러 한인들을 러시아 극동지역의 거대한 자연자원의 공동개발에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면 한국의 경제적 도약에 큰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김진(국립국제보건연구소),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7년 12월 20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К 10-летию памятника корейцам в Корсакове

Вот уже 10 лет над корсаковским портом возвышается девятиметровая стальная стела, символизирующая корабль.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на этом месте корейцы ждали паром в надежде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о дорога домой была закрыта еще полвека, они жили и умирали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С тех пор эту сопку называют Горой Грусти.

1 декабря в г. Корсакове на горе



Грусти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посвященная 1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памятника корейцам-жертвам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была делегац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Хангам Форум»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им Ен Воном. Именно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надлежит идея поставить на горе Грусти памятник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роекта такого масштаба стало под силу именно этому обществу, в рядах которого – руковод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бизнесмены, элита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 Мы хотим, чтобы памятник, который мы установили, стал символом трагедии, которую преподнесла нам 2-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Возвышаясь на горе, он будет постоянно напоминать людям об этой грустной странице истории,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общества «Хангам Форум» Ким Ен Вон.

Возложить цветы и вспомнить о трагед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диплома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эрии г. Корса-

кова и горожане. Несмотря на мороз, до конца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бабушки-корейки, которые так тосковали по Родине, 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дорога в Южную Корею была

открыта, решили оста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так как здесь их дети... Среди членов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был и автор проекта стелы – извест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кульптор Че Ин Су. 10 лет назад он лично контролировал процесс изготовления мемориала на заводе ДЭ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Затем единая конструкция и гранитные плиты для основания были погружены на корабль и доставлены в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рт.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это святое место, ставше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ью Корсакова, посетили множество делегаци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этот же день после обеда члены Общества Хангам Форум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де еще раз вспомнили об истории установления стелы, произошел обмен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и подарками с корейской и сахалинской сторон.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оводящей стороной проекта «Стела»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лось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и лично ее руководитель Ким Чун Дя.

**Фото: Ли Е Сик.**

## Сахалин посетила делегация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елегация педагог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 составе 8 человек с 30 ноября по 5 декабря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побывала на Сахалине.**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директор школ и работники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Визит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остоялся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Соглашени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в сентябре 2016 года минис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ей Мурашовой и начальник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из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ьенхи Мин.

В ход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миссии 1 декабря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остей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ллег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Елена Бабина,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Захарова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которых изучае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Мы искренне рад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 нашей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Нас радует ваш интерес к России и нашей культуре. Надеюсь, что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даст новый толчок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Мы всегда открыты к дружествен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и диалогу, – отметила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зам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Бабина.

После слов приветствия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а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ам о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а отдельно остановилась на вопросе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вашей страны изучаются на базе 5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и двух детских садов. Также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являют жители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а. По желанию родителей в двух корсаковских школах введе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второй иностранный предмет. Кроме этог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ы актив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с различны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целью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возрождение и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 отметила Елена Бабина.

– Мы близкие соседи, но незнание языка часто тормозит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и подъем их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Пусть новые горизон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ткрывают дети,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 языки наших стран и смогут лучше понимать друг друга. В Корею есть хорошая поговорка: путь в тысячу ли начинается с первого шага, – сказал глава делег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инции Джонг Джэ Сок.

По его словам, департамент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намеревается помочь островным школьникам учебника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становить контакты с Центром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сследова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сахалинск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где учат говорить на языке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теплой дру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Стороны распланировали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наладить двухсторонние поездки детей двух стран в гости друг к другу по обмену.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поездка 21 сахалинского школьник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ребята посетят 23-е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Пхёнчхане,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ветный визит корей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ланируется на сентябрь 2018 г. Программа визита госте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а очень насыщена.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состоялось знакомство с системой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сти побывали в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третьей гимназии,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Жемчужина» и «Чебурашка», в ДШИ «Этнос», а также посетили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Фот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ахалинск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завоевали 21 медаль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Хабаровске завершились первенство и чемпиона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Более 230 тхэквондистов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 Сахалинской, Амурской и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ей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боролись за право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Кубок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ляли 19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Охи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сразу в нескольких дисциплинах: в туле – техн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массаги – спарринге, и специальной технике, в которой спортсмен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удары в прыжках и силовом разбивании досок.

Для островной команды данный турнир стал богатым на награды. Рустам Анпилов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 спаррингах среди юношей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56 кг, а также в силовом разбивании досок. Также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в копилку островной команды внесли Родион Побыванец (до 62 кг), Леон Макаров (до 48 кг), Александр Дю (до 50 кг). Анастасия Лопушняк стала обладательницей двух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в спарринге среди девушек до 40 кг и в силовом разбивании. Также на высшую ступень пьедестала поднялся Роберт Но в дисциплине «специальная техника».

Серебряные награды завоевали Илья Мамаев



(весовая категория до 45 кг), Мия Рашова в этой же категории среди девушек, Антон Степакин (до 56 кг) и Александр Предеин (до 68 кг).

Бронзовых наград удостоены Мия Рашова, Леон Макаров и Лев Фадеев по программе туль. Последний, к слову, также завоевал бронзу в спарринге среди маль-

чиков 9-11 лет до 36 кг. Также бронза в спаррингах у Роберта Но (до 40 кг), Александра Мезенцева (до 44 кг) и Кирилла Василюка (до 56 кг).

А Дмитрий Ю и Али Мамедов стали третьими в спаррингах среди мужчин.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ая сборная юношей (14-17 лет)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стала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ером соревнований, а младшие юноши (до 14 лет) стали третьи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активе сахалинской команды 21 награда раз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 Для нас это просто прекрасный результат.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года ребята не показывали особых успехов, а под конец года собрались с силами и постарались порадовать тренеров и родител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ыступление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юк. – Сахалинцы заставили вздрогнуть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К нам подходили тренеры из других команд и поздравляли с успешн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ребят, отмечая, насколько вырос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островных тхэквондистов.

Первенство и чемпиона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являются отборочными перед Кубком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в феврале 2018 года пройдет в Москве. На него отправятся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прошедш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Депутаты Госдумы РФ сообщили, что КНДР готова сесть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КНДР готова сесть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с США при условии признания её ядерного статус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члены делегации Госдумы РФ, побывавшие в Пхеньяне.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Виталий Пашин заявил "Интерфаксу", что Пхеньян готов сесть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ссылаясь на сл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Ким Ён Нама. Пашин отметил, что КНДР готова к диалогу, достигнув паритета с США, благодаря успешному испытанию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Хвасон-15». Паши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сл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ДР о том, что он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пособность достойного ответа на любую агрессию со стороны США, способность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любой территории Америки. Член делегаци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Госдумы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Алексей Чепач сообщил, что Пхеньян готов ве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ереговоры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фликтной ситуации только при участии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может выступить в качестве гаранта переговоров.

## "Голос Америк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вернуться к диалогу, отказавшись от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быть готова к переговорам при наличии планов по свёртыванию свое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Такую позицию США представила 4 декабря радиостанция «Голос Америки», ссылаясь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Катини Адамс. В телефонном разговоре с журналистом радиостанции Адамс заявила об отсутствии сигнала об искренне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или готовности Севера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Так она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заявление делегации депутатов Госдумы России, побывавшей с визитом в Пхеньяне, о то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к диалогу при условии признания её ядерного статус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тмечает радиостанция,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подтвердила прежнюю позицию о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зн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 РК и США проводят учения ВВС Vigilant Ace

РК и США начали 4 декабр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е учения Vigilant Ace. По сообщ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К, они призван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пособность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овокации в виде пусков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 ходе манёвров задействованы более 230 самолётов, которые отрабатывают уничтожение объ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Пхеньяна, и передвижных ракетных пусковых установок. Кроме того, пройдут учения по уничтожению вражеской дальнобойной артиллерии и высадке десан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отивника.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манёвры являются регулярными и нося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 этой связи Сеул не будет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реакцию на них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 Для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 Пхохоне собрано почти 3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в ходе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Пхохана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было собрано 30 млрд 35 млн вон или примерно 27,6 млн долларов. Такая сумма был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дека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зафиксировано 92 пострадавших. Шесть из них проходят лечение в стационаре. Количество эвакуиров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898 человек.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щается благодаря продолжению процесса переселения людей, чьё жильё признано непригодным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вакуированные находятся в восьми временных пунктах пребывания. Всего зафиксированы 31.644 случая повреждения строений. Их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иходится на жилые дома. Пострадали 644 объекта в госсекторе. Из них 235 - это школы. (RKI)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К проблеме языковой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гражда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оцесс миг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з стран СНГ обретает все более интенсивный характер. Как правило, это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связанная с безработицей и более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ния. Интерес к Корею со стороны самих мигрантов совпадает и с нынешней политикой поощрения иммиграции, что связано с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м кризисом внутри страны.

Конечно, будуч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ругой культуры, приезжающие в Корею граждане СНГ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проблемой адаптации в новом для себя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И это не только языковая проблема, хотя владение языком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фактором успешной адаптации. Под адаптацией вообще подразумеваются также социальные, правовые, культурны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поведенческие аспекты. Насколько успешной и быстрой она будет,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не только от внешних целей миграции, но и от собственной внутренней установки мигранта, его готовности активно включиться в этот процесс.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несколько групп граждан СНГ с различающимися поведенческими моделями. К первой группе отнесем росси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этниче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риехавших в Корею по трудовому договору на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иод. Сюда же относятся те, кто воспринимает Корею, как исключительно иностра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не стремится освоить е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ности и коды поведения. И те, и другие, как правило, редко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Их социальные контакты ограничены кругом своего,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мира и прямым работодателем (зачастую посредством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Они не предпринимают особых попыток для вхождения в 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инимающей страны, а, наоборот, формируют параллельный, русскоязычный мир для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своих бытов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такой установкой, работает большинств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где обучаются дети граждан СНГ. Их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и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трого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российск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стандарты и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н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Вторая группа ставит перед собой цель ассимиля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К ним как правило относятся многие этни-

ческие корейцы, ориентирующиеся на долговреме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Корею, а в предельном случае и на натурализацию. Хотя этническ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не всегда является определяющим фактором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этой внутренней установки.

С ка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дети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ыбравших путь ассимиляции? Самая главная проблема – не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за языковой не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дети наших сограждан отстают от своих сверстников по степени усвоения учебного материала. Более того, известно,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мимо основных занятий в школах, получ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нания на курсах платного част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хагвонах, что не каждая русскоязычная семья может себе позвол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же родители не в состоянии не только помочь ребенку преодолеть пробелы в программе, но и в полной мере общаться с учителями 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шко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овремя узнавать нововведения, читать вывешиваемые объявления.

Во-вторых, это трудности вхождения детей в детский коллектив.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детей, которые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к учебному процессу на средней или старшей ступенях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чень часто доводилось слышать жалобы от родителей, что даже если ребенок все понимает и отвечает академическим требованиям (родился в Корею или ходил в корейские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н не может найти друзей и чувствует себя одиноким, потому что является просто «другим». Это порождает чувство неловкости, стеснения или стыда наших детей, которые они чувствуют по причин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другой культур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 считается мнение среди родителей, что особая опасность поджидает детей после перехода из начальной ступени (초등학교) на следующую. Например, даже казалось бы в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ах Кореи, где обучаются дет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уровня и дохода, именно в этот период начинаются ксенофоб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среди учащихся. Между иностранными и мест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учениками и родителями часто н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понимания.

Причи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Корея – это моноэтническая страна с порой враждебным отношением ко всему «иному», «чуждому», «непонятному». Так,

русский кореевед Ланьков А.Н.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описывает отношение корейцев к другим народам: «Корейцы, в своей массе, настроены более чем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 гордятся тем, что ... они являются нацией с самой чистой кровью» [6, 422]. Иначе говоря, если язык можн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выучить, то сформиров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тнош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цев к иностранцам гораздо сложнее; это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требующи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х комплексных программ. Хотя не может не радовать,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Кореи происходят существ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поддержки принципо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Так пишет в своей книге «Южная Корея» кореевед и журналист-международник Олег Кирьянов: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ведут активную пропаганду необходимости «глобализации»,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и», «превращения в полноправных жителей всемирной деревни».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блюдаем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создаются центр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детей, государство финансирует программ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Например, в Сеуле открылась школа дл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서울다문화관광동등학교 [8]. В школе в 초량초등학교 г. Пусана, 진영금병초등학교 в г. Кимхэ, где больше всего проживают выходцев из стран СНГ, открыт класс адаптации, гд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детей, родным языком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не корейский, учителя проводя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и даже пытаются ввести кружок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школы и учителя формируют у местных детей гуманное и толерант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детям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культур. Но процесс этот должен быть взаимным – только понимание культурных основ друг друга способно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остроению правильной модел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людей различ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Он также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от созд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ом особых механизмов социализации и аккультурации мигрантов. А пока этот процесс зачастую драматичен и требует времени и усилий.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Тен Жанна,

директор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достоверные эксклюзивные новост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лдата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и венков, посвященная памятной дате - Дню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лдата - состоялась сегодня 3 декабря на мемориале Сла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астие в ней принял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етераны и школь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День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лдата – сравнительно новая памятная дата, установленная в ноябре 2014 года. Она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ся в России 3 декабря. В этот день в 1966 году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25-й годовщины разгрома немецких войск под Москвой прах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лдата был перенесен из братской могилы на 41-ом километре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шоссе и торжественно захоронен у Кремлевской стены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 саду. Впоследствии там открыли мемориальный архитектурный ансамбль - Могилу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лдата.

- Считаю важным, что в стране 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проживаю, начали отмечать эту памятную дату. Подвиг наших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 боях за Родину и чьи имена остались неизвестными, бессмертен. Я не пропускаю ни одного так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меня это очень значимо, - отметила прибывшая на церемонию участница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Декабрица Михайловна Пушкарёва.

Далее она продолжила четверостишием:

«России верные сыны,  
О Вас храним мы память свято!  
Ведь с нами символ той войны -  
Могила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лдата!».

После минуты молчания участники сегодняшней церемони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и венки к Вечному огню на мемориале Славы. В память о не вернувшихся с полей сражений воинах прозвучали ружейные залпы.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т бюджет на 2018–2020 годы

Проект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утверд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ума. Новый бюджет сбалансирован, сохраняет социаль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и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Такие приоритеты в расходовании средств, предложен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оддержало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депутатов.

Расход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2018 году составят свыше 111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всех средств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на социальную политику, образование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Запланирован рост зарплаты бюджетников.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охватят 18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на островах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около 150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ады, спорткомплексы и больницы. Внушительная сумма – свыше 2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В доходной части бюджета-2018 - 16,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федеральной субсидии. Это те самые средства, которы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компенсированы выпадающие доходы, возникающие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я доли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от СРП по проекту «Сахалин-2». Большая часть налога с нового года начнет зачисляться уже не в областной, а в федеральный бюджет.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РФ по предложению ряда федер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Теперь задач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тесном контакте с федеральным центром обеспечить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сть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следующий трехлетний период.

Перед министерством финансов РФ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оценить ситуацию с доходами области и найти адекватное замещение выпадающих средств.

Напомним,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логов от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в пользу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оисходило неоднократно – в 2002, 2004 и 2005 годах. При этом сохраняемый уровень дохода региона и его поддержки позволяли обеспечивать как расходы на первоочередные цели, так и на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ов.

## Кадровы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зош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6 декабря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Антон Волошко.

Ему 37 лет. Антон Волошко - уроженец Владивостока. В 2002 году он окончил факультет журналистик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рудился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Приморья», работал в телекомпаниях «Первый канал» и «НТВ». Трудился на различных должностях в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В мае 2015 года был назначен заместителем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иматься вопросами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в ранг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Алексей Белик. До этого дня он руково-

дил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2005 году окончил Куб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Финансы и кредит». Работал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гентстве по ипотечному жилищному кредитованию», «Агентстве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нимал пост вице-мэр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феврале 2017 года возглавил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перь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этого орга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будет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10 декабря истекает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а Житкова, отвечающего з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анспорт,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энергетику, гражданскую оборону, ликвидацию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 Прибывающим в регион медика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ременное жилье

В этом году сотрудники остро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лучат 81 квартиру, приобретенную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66 из них уже заселены. Остальные квартиры будут куплены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медикам служебного жилья – важ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часть работ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кадрам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Такую задачу поставил в одном из своих майских указов 2012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итоге за время действия специ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нной в области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и 529 врачей и 571 специалист среднего звена.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закончивши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И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лужебное жилье. Им за время действия программы обеспечены 377 враче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ля медиков и серьезны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пример, выплата подъемных. Врачи получают от 725 тысяч рублей до 1 миллиона 300 тысяч рублей. Фельдшеры – от 400 тысяч до 600 тысяч рублей. Выплаты сотрудникам, относящимся к среднему персоналу, составляют от 270 тысяч до 405 тысяч рублей.

В эти дн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чинается засел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трех- и четырехкомнатных квартир.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помещениях – новая мебель, полностью укомплектованные кухни. В ванных комнатах – стиральные машины.

- Здесь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ибывшая на Сахалин из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медсестра Елена Муйтуева. – Поэтому я долго не раздумывала, сразу согласилась переехать из съемной квартиры.

- В нашей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не хватает медицинских сестер, штат средн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заполнен только на 60 процен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сестра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Елена Николаева. – Поэтому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жилье поможет нам привлечь на работу выпускников, например, нашего местн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Будем предоставлять его и сотрудникам, приезжающим с материка.

-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уза была на распутье, предложили поехать на Сахалин, я и согласилась, – рассказала врач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помощи» Ксения Козленко. – Прибыла на остров. Мне выделили комнату. Жилье хорошее. Платить надо только з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никаких расходов за аренду.

## На Сахалине идут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по переводу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газ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водятся курсы подготовки водителей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работающего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уже получили 60 специалистов.

Один из них - Михаил Антипов, водитель пассажирского автобуса. Уверяет: различия в управлении транспортом не заметил. Зато стал больше уверен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ждения.

- Многие опасаются ездить на газе, считая, что он опаснее бензина. Но это предубеждение. Метан не взрывоопасен. Более того, газ находится в баллоне, стенки которого выдерживают рабочее давление 200 кг/см<sup>2</sup>, что исклю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зрыва даже при серьезной аварии, арматура газового баллона снабжена автоматическим устройством, предотвращающим утечку, - поделился Михаил Антипов.

Отметим, в рамках перевода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на газ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закуплено 40 пассажирских автобусов и 6 единиц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область поступит еще 13 машин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и 3 еди-

ницы техники дл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166 единиц сахалинского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спользуют природный газ в качестве 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На нем ездят такси, городской автотранспорт, коммунальная и спецтехника. К концу года эта цифра составит около 200 единиц. Для правки та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ботают дв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газонаполнительные компрессорные станции, которыми уже реализовано порядка 650 тысяч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Цена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в четыре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на бензин, -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газификации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и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ила Вертопрахов.

По инициатив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для тех сахалинцев, кто решит переоборудовать свое авто под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в два раза снижен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на Попова своего «железного коня» на газ перевела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оворит, это позволило сэкономить ни одну тысячу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 Но дело даже не только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и средств, меня беспокоит вопрос экологии.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зим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новится совершенно нечем дышать от количества выхлопных газов. Это хорошая инициатива, ведь чем больше машин перейдет на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тем чище станет воздух в городе, - поделилась женщина.

По оценке эксперто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позволяет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вредных выбросов в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в 10 раз и способствует улучшен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Напомним, задачу по переводу техники на газовое топливо перед регионами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ходя из плот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количество машин на газе должно составлять не менее 10%. По общественному транспорту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 регионе уже достигнут.

##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Интернет проведен в 11 малых сел Сахалина

С 1 декабря услугу широкополосного доступа во Всемирную паутину получили жител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центральной и южной частей острова. До сел, где сегодня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3,5 тысяч человек, была протянута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ая линия связи.

Это Таранай и Рыба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Октябрьско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ервая Падь и Озёрск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арусное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дгорное и Славы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овхозное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а также входящие в гран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Ёлочка и Старорусское.

- У жителей данных сел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авторизоваться с мобиль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и получать услугу доступа во Всемирную сеть бесплатно через Wi-Fi, - поясн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связи Сергей Попов. – Еще один путь – заключить договор с компанией-провайдером. В этом случае для абонентов открывается доступ ко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услугам связи, в том числе и к интерактивному телевидению.

Поставщиком Интернет-услуг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 стала выигравшая аукцион компания «Ростелеком». Согласно требованиям госконтракта она провела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ую линию связи на условиях областного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Услуги доступа в Интернет для селян должны оказыватьс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езлимитных тарифов на тех же условиях, что 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Интернет уже пришел в 15 малых сел Анив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программ,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жителей каче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Интернета 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Разработаны он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В том числе есть и федеральные соглашения, как например, заключенное в 2016 году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Ф,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остелекомом». Документ был подписан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пример, на Сахалине в 2018 году оптоволоконно придет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Хоз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 также Восточный и Москальво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дводной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ой линии связи между островами Сахалин, Итуруп, Кунашир, Шикотан. Завершиться работы должны до конц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영주귀국자들의 소식

양산시 사할린동포회, 포항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 전달

양산시 사할린동포회(회장 박장녀)는 11월 30일 포항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 30만원을 양산시로 기탁하였다. 사할린동포회 회장 박장녀는 "지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작게나마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바람으로 회원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았다"며 기탁소감을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 30만원은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양산시 사할린동포회 포항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국제뉴스)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의 뜻깊은 고국 나들이 영주 귀국 동포 60명 초청 가을 여행 다녀와

경남 김해시는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본부 후원으로 지난 23일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 60명과 합천군 일원으로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김해시 장유3동 자원봉사캠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한 이날 행사는 사할린동포들에게 합천 해인사를 비롯, 영상태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 등을 관람하며 고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사할린동포들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가 광복 후에도 소련의 강제적류 정책으로 오랫동안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다가 지난 1990년 소련 정권이 붕괴되면서 60세가 넘는 노구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김해에는 90명의 어르신들이 영주 귀국하여 생활하고 있다. 김용생 김해시사할린동포협회장은 "주변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낯설고 외로웠던 고국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이번 여행으로 노년기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2017 재외동포재단 공모사업 시상식'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 재외동포재단 공모사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수상자, 심사위원, 재외동포 화가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2017 학위논문상, 창립 20주년 로고송 공모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재외동포문학상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로 19회를 맞은 재외동포문학상에는 총 47개국에서 1,520편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3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단편소설 우수상 수상자 권용주 씨 (캐나다)와 김태영 씨 (뉴질랜드)가 참석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구효서 소설가가 시상했다. 그 외 수상자 시상식은 해당 공관에서 진행 중이다. 이어진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시상식에서는 <칠레 한인의 '글로벌 세미노스(Global Semi-North)' 정체성>을 주제로 한 최진욱 한국외대 한국학 박사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외교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석·박사 부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등, 최종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학위논문상은 재외동포 관련 연구 활성화 및

국내외 신진 연구자 발굴을 위해 2012년 이래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제6회 학위논문상에는 박사 논문 9편, 석사 논문 13편 등 총 22편이 접수된 가운데 7편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재외동포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로고송 공모에는 총 36곡이 응모한 가운데 양진영 씨의 <글로벌 코리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수 윤형주 씨가 최우수상작인 <글로벌코리아>를 편곡해 재탄생한 재단 공식 로고송도 발표했다. 로고송은 라디오 광고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재단과 동포사회는 물론, 내국민과 동포 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의미 있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내국민과 재외동포 간의 거리를 좁히는 한편, 관련 신진 연구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8년도 재단 달력과 창립 20주년 기념 우표첩이 공개됐다. 특히, 2018년도 달력은 11개국의 재외동포 화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져 그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에는 재능기부에 참여한 재외동포 화가 12인을 대표하여 박미하일(러시아)과 제니카 조이(미국) 작가가 참석해 달력 전달식과 함께 소감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우리말로 깨닫기]

사투리에서 배운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사투리는 고쳐야 하는 말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말이다. 사투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은 거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부럽다. 그래서인지 사투리 공부도 더 재미있다. 기회가 되면 시골의 어르신들과 오랫동안 사투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방언사전을 보면서 상상과 현실의 양쪽 나래를 펼쳐 본다. 그러면 사투리로 날게 된다. 언어의 하늘을.

신체 관련 사투리나 병에 관련된 사투리에서 언어의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눈초리>라는 말은 사투리에서 눈꼬리로 나타난다. 초리와 꼬리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눈까풀>을 눈뚜경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뚜경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재미있다. 글이나 말에서 살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흥미로운 사투리는 <다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리를 제주에서는 가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처용가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도 있다. 처용가에 가달이 냇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가랑이가 냇이라는 설명으로는 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다리가 냇이어야 맞는 해석이 된다. 그런데 가달의 흔적이 제주어에 남아있는 것이다.

<대머리>의 경우도 재미있다. 단어의 구조상 '대 + 머리'이므로 대가 머리카락이 없다는 뜻일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언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접근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머리의 사투리로는 '번대머리/번대/뺨들머리/민대머리' 등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대'의 의미를 머리카락이 없다는 뜻으로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번'은 보통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번대머리'는 빛나는 머리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대'를 머리의 뜻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번대'는 더 그렇게 볼 가능성을 높인다. '민대머리'도 '민'이라는 말은 민둥산, 민머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된다. '대'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다는 뜻으로 된 것이 아님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대가리, 대갈딱' 등의 어휘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어휘들은 그냥 머리를 의미한다. 머리카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병에 대한 것 중에서 <이질(痢疾)>을 '피배알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흥미롭다.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꿀 때 참고한다면 민중의 언어 의식과 삶의 모습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 조상들은 병을 높여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어휘가 <마마>이다. 보통 천연두나 홍역을 마마, 손님 등으로 부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마 대신에 '마누라, 큰마누라'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마누라는 아내의 의미가 아니라 극존칭의 의미이다. 우리말에서 아내를 나타내는 <마누라>의 근원 역시 극존칭에서 왔다.

<버짐>을 버듬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발음으로 보면 비듬과의 관련성이 느껴진다. 얼굴 등에 나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버짐이라고 한다면 머리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은 비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듬>의 방언에도 비짐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함경도에서 나타나는데 버짐과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서로의 방언이 연관성의 고리가 되는 예이다.

<불거리>라는 병은 불에 나는 병이다. 여기에서 '거리'는 병의 뜻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방언에 <학질>을 '말거리'라고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거리가 병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월경>을 순우리말로 '달거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리도 병의 의미이다. 예전에 우리 조상은 달거리를 병으로 본 것이다.

이 밖에도 사투리는 우리를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예를 들어 <배꼽>을 배꾸멍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어찌 보면 배의 구멍이니 이 표현이 정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손뼉>의 경우는 손바닥으로 표현하는 곳도 있다. 손뼉을 치는 것이 곧 손바닥을 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한편 손뼉은 손+뼉의 구조이므로 '뼉과 바닥'의 관련성도 생각해 보게 된다. 집에도 '뼉과 바닥'이 있지 않은가? <머리숯>을 '머리숯'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어서 흥미롭다. 숯이라는 말과 숯의 연관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식은땀>이라는 말을 헛땀으로도 표현한다. 땀이 식었다는 표현도 재미있지만 쓸데없이 흘렀다는 의미의 헛땀도 재미있다. 가능하면 둘 다 살려 쓰면 좋을 듯하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입천장>에 대한 사투리다. 입천장을 사투리에서는 '입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입에 있는 천장보다 입에 있는 하늘이 훨씬 부드럽지 않은가? 살려 쓰고 싶고 자주 쓰고 싶은 사투리다. 사투리는 보물창고다. 사투리를 더 살려 쓸 방안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자칫하면 다 사라진다. 창고가 텅 비어 버린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올카(트리) 축제도 역시 18시에 시작한다고 사할린 필하모닉 사이트에서 알렸다. 추위 할아버지와 백설공주, 동화 속 주인공들은 새해 축제의 손님들을 기다리며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마당, 명절 불꽃놀이 등이 기다리고 있다.

##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главной ёл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ится "Медвежий флешмоб"

16 декабря в 18 часов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чного открытия главной ёл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дом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новогодний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костюм медведя под названием "Медвежий флешмоб".

В нем може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проявив свою фантазию.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 только костюм медведя, который можно изготовить своими руками, купить или взять напрокат.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ым удастся покорить всех лучшими медвежьими костюмами и самыми оригинальными образами, будут удостоены призов от спонсоров.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ится на сцене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ы.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Медвежьего флешмоба" начнется 16 декабря в 17:30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дом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айоне сцены).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242) 72-82-02,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культуры.

Сам праздник открытия стартует также в 18 часов,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Гостей новогоднего праздника ждет встреча с Дедом Морозом, Снегурочкой и сказочными персонажами, а также 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детей, праздничный фейерверк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일리아 텐(정)이 <아빌림픽스> 전국대회에서 3위 차지

사할린 장애인대표팀이 <아빌림픽스> 장애인기능 올림픽 챔피언대회 결승에 출전했다. 대표 혼성팀에는 참가자 8명과 엑스페르터(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청년들은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거쳐 제3회 전국 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권리를 얻었다.

올해 모스크바 결승에는 84부문에서 75지역의 참가자 900명과 전문가 700명이 모였다. 사할린 대표팀은 <데이터 관리>에 일리아 텐, <로봇기

술>에 블라지미르 슈벤코브, <요리>에 아르투르 바드레트지노브, <가구제작>에 콘스탄틴 도브라크, <도색>에 릴리아 야츠시나, <문서 확보 관리 및 보관>에 알리나 미하일로와, <출판>에 제니스 피다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일리아 텐이 대회에서 우수성을 발휘해 3위를 차지했다.

"우리는 <아빌림픽스> 전국장애인기능 챔피언대회를 통해서 아주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참가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사할린 대표팀 지도자고 블라지미르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대회 과제들이 아주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대표팀의 결승대회 참가는 사할린주교육진흥원이 조직, 사할린주교육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러시아 월드스킬스 사할린지점 홍보실이 전했다.

## Илья Тен завоевал бронз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Сахалинская сборная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Команда состояла из 8 участников и 12 экспертов. Все ребята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II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конкурс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после победы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В этом году московский финал собрал 900 участников и 700 экспертов из 7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84 компетенциях. Сахалинцы состязались в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и баз данных" (Илья Тен), "Робототехнике" (Владимир Шубенков), "Поварском деле" (Артур Бадретдинов), "Мебельщике" (Константин Добряк), "Малярном деле" (Лилия Яцышина),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м обеспечении управления и архивоведении" (Алина Михайлова) и "Издательском деле" (Денис Питта).

Наи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 Илья Тен, который сумел завоевать третье место.

— Мы получили очень ценный опыт участ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Абилимпикс". Мы увидели, как можно готовить наших ребят к дальнейшему участию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сборной Владимир Ко.

Специалисты отметили, что задания были очень сложными.

Поездка сборной регион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институтом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WorldSkills Russia.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전통 예술의 향연(饗筵)"에 초대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국 화성두레농악보존회가 사할린주한인회의 초청으로 <전통 예술의 향연>을 개최한다.

일시 : 2017년 12월 16일 오후 4시

장소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

주최 | 주관 : (사)화성두레농악보존회, 사할린주한인회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신문, 새고려신문사

주최측은 관람객들이 흥쾌히 즐길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사할린동포들을 공연에 초대한다.

입장은 무료다.

## Приглашаем на ПРАЗДНИК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16 декабря в 16.00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стоится концерт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В программе выступ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из Общества по сохранению самобытной крестьянской музыки местности Хвасон, а такж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ДШИ «Этнос» и группы «Ханьль» при ККЦ.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щество по сохранению самобытной крестьянской музыки местности Хвасон,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собрания депутатов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до, Фонда культуры Кенгидо, газеты Кенги(Р.Корея),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ooo «мускон - соболь»

реклама

bilet.sakh.com

#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